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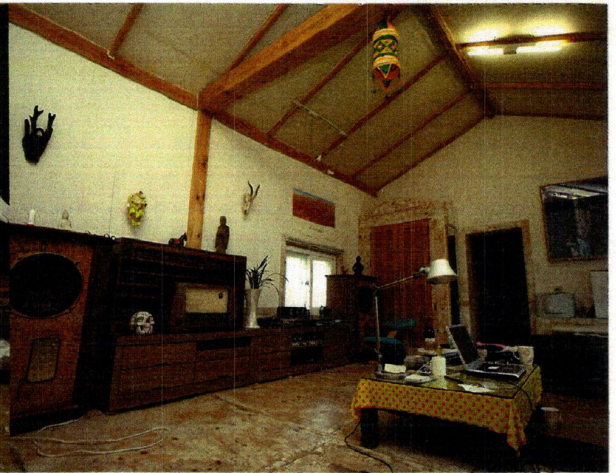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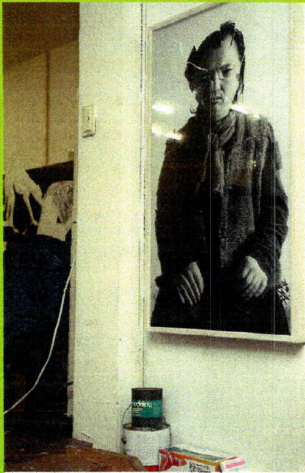
핑크가 세상을 칠하다!
Interview 강홍구 Artist 천경우 임상빈
Essay 미술 속에 돈이 있다



Ahn Chang Hong

안창홍 1953년 경남 밀양 출생. 1981년 공간화랑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약 20여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봄날은 간다>전(광주시립미술관, 2008), <안창홍 정복수>전(아트사이드, 2007), <우리시대의 얼굴>전(김해문화의전당, 2006), <한국현대미술100년>전(국립현대미술관, 2006), <번역에 저항한다>전(토월미술관, 2005), 2004년 부산비엔날레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프랑스 카누국제회화제 심사위원 특별상(1989), 제10회 봉생문화상 전시부분(2000), 제1회 부일미술대상(2001)을 수상했다.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안창홍 시대의 초상>전(2. 28~5. 5)이 열리고 있다.

artist atelier archive



이곳에서 치유하고 살아남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의 '선바위 마을'에는 11가구가 산다. 비가 많이 내리면 외부와 고립되는 '특이한' 지형적 구조의 이 마을에 안창홍의 아틀리에가 있다. 하천이 흐르는 다리를 가로질러 그의 아틀리에를 찾았다. 안창홍은 이곳에서 20년째 작업 중이다. 때문에 들어서면 다섯 마리의 개들이 달려 나와 손님을 반긴다. 한편 벽수, 문인석(文人石) 등 그가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석(石)장승이 서 있는 마당 뒤로는 아틀리에가, 왼편으로는 침실과 부엌이 딸린 안채가 위치한다. 그 두 곳마다 작가의 취향과 관심사를 알 수 있는 수집품들이 가득하다. 안창홍은 인도 몽골 네팔 그리스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수브니어(Souvenir)를 즐겨 모은다. 아틀리에 곳곳에 각 나라 특유의 정취가 담긴 조각상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 몇 년간, 안창홍에게 아틀리에에는 '치유'의 장소였다. 그는 2년 전 갑작스레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다. 그리고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다. 요양을 뿌리치고 그가 선택한 곳은 아틀리에. 작업은 치료제에 다름 아니었다. 아틀리에에는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의 신작, 〈베드 카우치(Bed couch)〉 연작이 시야를 가득 메운다. 지난 창작의 결과물에서 풍겨나는 파워풀한 에너지가 가득한 이곳에서, 또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은 〈자화상〉이다. 사진을 콜라주한 흑백 사진 속 그에게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안창홍 특유의 기운이 전해진다. 그의 얼굴에서는 작업과 삶에의 강인한 의지가, 무릎 위에 올린 단단해 보이는 두 손에서는 바지런하고 악착스러운 생활 태도가 진하게 묻어난다. 투지와 열정으로 뭉친 안창홍, 그리고 그가 머무는 아틀리에와의 짧은 만남은 진한 감정의 여파를 던져준 덕담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풍경(風景) 소리가 울려 퍼지던 마당에 서서 그는 힘주어 말했다. "열심히 살아라."

| 이선화 기자

